보 도 해 명 자 료
('11. 9. 23.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제목 : 연합뉴스, 머니투데이 등 "북한, 국내 원자력 발전 해킹 시도 있었다" 보도에 대한 해명

1. 기사요지 ('11.9.23. 연합뉴스, 머니투데이 등)

□ 지경위 김성회의원(한나라당)은 최근 북한이 국내 원자력발전(원전) 시설에 대해 해킹시도가 있었으며 지난 3년간 지경부 산하 공기업에 대해 총 1만945건의 해킹시도 있어 사이버보안 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□ 전 세계적으로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도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침입시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임

□ 다만, 보도내용에서 언급한 해킹시도 건수는 지식경제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365일/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탐지한 침입시도 건수로서 해킹사고와는 무관함

※ 참고 :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현황

☞ 자료문의 : 지경부 정보화담당관실 박영삼 과장(02-2110-5231),
최우형 사무관(02-2023-1812)

「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」 현황

□ **설립목적**

○ 에너지, 산업, 무역, R&D 등 지식경제부 소관 공공기관을 사해킹,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

□ **개소일자:** '08. 7월

□ **조 직:** 보안관제팀, 침해사고대응팀, 취약점분석팀 등 **총 3개팀**

□ **주요기능**

○ '11. 9월 현재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① 365일/24시간 **실시간 보안관제**, ② **침해사고대응**, ③ **취약점 분석 평가**를 실시